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의 다차원적 이해

—신학적, 사회적, 인종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선욱*

1. 서론

비유에 대한 해석은 초대 교부들로부터 중세와 종교 개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¹⁾ 알레고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역사비평적 해석, 그리고 실존주의적 해석 등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²⁾ 특별히 19세기에 율리히(A. Jülicher)는 비유 해석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으며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는 저서 *Die Gleichnisreden Jesu*에서 비유 해석의 초창기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알레고리적 해석에 마침표를 찍고, 비유 해석의 중심 원리를 제시했다.³⁾ 율리히에 따르면 비유는 단지 메시지 전달을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 1) 비유 해석사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33-76을 참조하라. 유대교의 랍비 비유와 기독교의 예수 비유 사이의 상호 유사성을 조사하면서 비유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의의를 연구한 영(B. H. Young, *The Parables: Jewish Tradition and Christian* [Peabody: Hendrickson, 1998])도 예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101-18을 보라). 영은 1세기 유대교의 가르침들이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윤리와 신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 2) 실존적 해석의 대표적 학자는 비아(D. Via Jr.)로 그는 비유를 심미적(esthetic)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존주의적 해석을 통해 메시지를 도출해 낸다. D. Via Jr., *The Parables: Their Literac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1967)를 보라.

위해 인물, 사물, 사건 등을 빗대어 창작된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교훈만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비유에 나타난 표면적 묘사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여 자의적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올리허는 이에 반대하여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이 있을 뿐이며, 알레고리적 특성은 없고 단순히 비사(比辭, similitude)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의 비교점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교훈만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올리허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폐해를 막고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오직 하나의 교훈만을 제시하고,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의 성격만을 가진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리허의 해석은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⁴⁾ 스타인(R. H. Stein)은 두 가지 점에서 올리허의 해석의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올리허는 알레고리 해석을 과도하게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비유를 구약과 랍비 문헌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근거해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리스식이 아닌 유대적 특성에 기초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 알레고리적 특성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나 심지어 바울(예. 고전 10:1-4)도 구약의 사건들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레고리적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시도는 예수가 유대적 환경과 전통 속에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3)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vol. 1 (Freiburg: J. B. C. Mohr, 1888). 종교 개혁 시기에 비유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루터는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강도 만난 자를 아담과 인류로, 강도들을 마귀로, 기름을 은총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알레고리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인 오리겐의 해석(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는 아담[또는 인류], 기름은 사랑의 교리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참고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40-56; A. M. Hunter, *Interpreting the Parables* (London: S.C.M Press, 1972).

4) N. Perrin, *Jesus and the Language of the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1980), 96; Hunter, *Interpreting the Parables*, 39.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둘째, 그는 예수 비유에는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윤리적 교훈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만일 예수 비유를 통해 오직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전했다면, 비유를 듣던 자들이 분노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을 이유가 없다. 예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존의 일반적 통념과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뒤엎는 전복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중에게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다.⁵⁾

예수는 비유를 통해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율리히의 비유 해석의 원리는 역사비평 방법론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의 비유에 다양한 교훈을 찾으려는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한 가지 교훈만 가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교훈들을 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 블롬버그(C. L. Blomberg)는 예수의 비유에서 한 가지 이상의 교훈을 찾으려는 방법론적 시도를 제시한다.⁶⁾ 그의 비유 해석 방법은 몇 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있으나에 따라 교훈의 수를 제시한다. 비유에는 한 가지 요점만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블롬버그에 따르면 세 개까지) 요점들도 존재하며, 이 요점들을 통해 각각의 교훈을 얻는다. 그는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요소의 수에 따라 ‘한 요점(one-point) 비유’, ‘두 요점(two-point) 비유’, 그리고 ‘(단순한 또는 복잡한) 세 요점(three-point) 비유’로 나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세 요점 비유’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세 인물을 통해 각각의 교훈을 도출해 낸다.⁷⁾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비유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행의 윤리적 교훈이 강하게

5) 로버트 H. 스타인,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방법과 메시지』, 김도일, 최홍진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00-102.

6) 크래그 블롬버그, 『비유 해석학』,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7) 블롬버그, 『비유 해석학』, 218-27.

나타난다. 하지만 인물 설정에서 강도 만난 자인 유대인을 도와준 자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멀리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으로 하고, 반면에 강도 만난 자기 동족을 못 본 채하고 지나쳐버린 매정한 자로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정결하다고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⁸⁾ 이는 인종적 차원에서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책망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비유가 가진 전복적 특성이 여기서 잘 드러나며,⁹⁾ 선행 이외의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비유의 의도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¹⁰⁾

필자는 예수의 비유가 한 가지 교훈만을 담은 것도 있지만, 다차원적인 복합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제시된 것도 있다고 본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읽히도록 요구되고,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비유에서 신학적, 사회적, 인종적, 윤리적, 경제적인 다섯 가지 관점을 통해 각각의 교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예수의 비유를 보다 폭넓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반성하며, 행동하도록 촉구하게 만든다.

8)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높고, 레위인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보다 높고, 이스라엘 사람은 서자(庶子, *mamzer*)보다 높고, 서자는 성전 노예(*Netin*)보다 높고, 성전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개종자는 해방된 노예보다 높다. (미쉬나 Horayot, 3:8)” 버나드 브랜드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감기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105에서 재인용.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위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9) 크로산(J. D. Crossan)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도전적 비유”(challenge parable)로 분류하고, 사회적 기대에 대한 전복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J. D. Crossan, “The Parables of Jesus,” *Interpretation* 56 (2002), 247-59;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New York: HarperCollins, 2013), 134.

10) 비유 해석의 다양한 관점은 심지어 ‘해학’이라는 차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기도 한다. 김춘기는 이 비유 안에 나오는 예수의 해학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가를 연구했다. 김춘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0-35)에 나타난 예수의 해학,” 『신학과 목회』 37 (2012), 151-82.

2.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과 구조

예수의 비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이다. 이 비유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과 구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모범적 행위의 비유”(a parable of exemplary behavior)로 분류된다.¹¹⁾ 하지만 이 비유는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행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신학적,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의미와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참된 이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각각의 관점에 따라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앗수르인 등)의 피가 섞인 혼혈인으로 간주하고 멸시했고, 이에 반발하여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관계 악화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는 비유를 통해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가르친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선교 명령에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마 10:5)는 부정적 차원에서 사마리아를 언급한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단락(눅 9:52-19:27)에서 사마리아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예수의

11) A. J.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Eerdmans: Grand Rapids, 2000), 92.

일행 방문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거부’(9:51-54),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25-37),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17:11-19). 또한 누기는 사도 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행 1:8)라는 복음 전파의 지리적 확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마리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8장에서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2.1 역사적 배경¹²⁾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개심의 발생 원인은 사마리아의 비극적인 역사와 유대인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서로 간의 적대감의 발로는 긴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쌓여 왔다. 최초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앗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찾아왔다. 사마리아인은 앗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민족적인 순수 혈통을 잃게 되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다. 사마리아는 오므리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왕상 16:24), 오랜 기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앗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 의해 주전 722/721년에 함락되고 앗수르의 속주로 편입된다. 이후 사르곤 2세는 대대적인 이주 정책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추방하고, 대신 앗수르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통혼하게 만든다(참고, 왕하 17:24-25). 앗수르는 이러한 이주 정책을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혈통을 말살시키고 앗수르 제국 안으로 완전히 동화시키려 했다. 이로 말미암아 혼혈인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부터 멸시와 비하의 대상이 된다.¹³⁾

12) F. F. 브루스 외, 『새성경 사전』,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734-37; 테렉 윌리엄스 편집, 『IVP 성경사전』, 이정석 외 역 (서울: IVP, 1992), 229-30;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38-39; E. Ferguson,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534-35의 글을 주로 참조하였다.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¹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이를 비난했고,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아무런 기업과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느 2:17-20).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고(4:1-3), 이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사마리아인이 구별된 집단으로 등장한 시점은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의 대적자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¹⁵⁾ 하지만 혼혈화된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 집단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갈등의 뿌리를 이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로 간의 반감과 증오를 극대로 불러일으킨 계기는 유대인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졌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참고 요 4:5-6).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또 다른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유대인들은 요한 할카누스를 중심으로 주전 128년에 그리심 산의 사마리아 성전을 훼파시킴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을 극도로 증대시킨다.¹⁶⁾

마지막으로 언급될 수 있는 사건은 적개심에 가득 찬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참혹한 살육이 이루어진다.¹⁷⁾ 주후 6-9년 사이의 어느 유월절 기간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뼈를 뿌려 부정케 했다. 주후 52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순례자들을 살해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 대량 학살을 저지른다.

13)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238-39

14) R. T. 프랜스, 『누가복음』, 이옥용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62.

15) F. F. 브루스, 『새성경 사전』, 736; 데렉 윌리엄스, 『IVP 성경사전』, 230.

16) 데렉 윌리엄스, 『IVP 성경사전』, 230.

17)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38-39.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오랜 기간을 통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서로를 향해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서로 간의 반감과 비하의 내용이 나온다. 누가복음 9:51-54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 방문을 거부한다. 사마리아인들을 유월절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불로 멸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두 제자를 꾸짖으며 다른 마을로 간다. 또한 요한복음 8:48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그가 귀신들렸다고 말한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자로 간주하고 주술행위자들로 치부했으며,¹⁸⁾ 예수도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하한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 간의 강한 적대감과 단절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참고 요 4장),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철저히 배격했다.

2.2 문학적 특징과 구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영생에 대한 질문(25-28절)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9-37절). 첫 번째 부분은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는 예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냐고 질문한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도리어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예수님은 그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한다. 두 번째 부분도 율법교

18) G. R. Beasley-Murray, *John*, WBC 36 (Dallas: Word, 2002), 136;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29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58.

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다. 예수는 이 물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자비를 베푸 자라고 대답한다.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한다.

이 두 부분은 의도, 질문, 반문, 대답, 명령이라는 다섯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동일한 패턴을 가지며 다음 같은 문학적 구조를 보인다.

I. 영생에 대한 질문(10:25-28)

1. 율법교사의 의도(10:25a): “예수를 시험하려”
2. 율법교사의 질문(10:25b):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3. 예수의 반문(10:26):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4. 율법교사의 대답(10:27): “[...] 하나님을 사랑하고 [...] 이웃을 사랑하라”
5. 예수의 명령(10:28): “이를 행하라”

II.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29-37)

1. 율법교사의 의도(10:29):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 율법교사의 질문(10:30):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비유(10:30-35)>
3. 예수의 반문(10:36):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4. 율법교사의 대답(10:37a):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5. 예수의 명령(10:37b): “너도 이와 같이 하라”¹⁹⁾

이 에피소드의 중요 모티프는 ‘들음과 행함’이다.²⁰⁾ 그리고 이 모티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문학적 구조에서도 평행을 이룬다. ‘들음’은 율법의 총체이며 근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다. ‘행함’은 ‘들음’을 통해 알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두 부분의 결론은

19) J. 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427;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232-33.

20) Green은 이 이야기가 신명기 6-7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Green, *The Gospel of Luke*, 425.

예수의 마지막 명령인 ‘행하라’로 마친다(28, 37절).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는 율법교사가 대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옳다고 말하지만, 이에 덧붙여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고 말하면서 행할 것을 명령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옳게 대답하지만, 예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고 말하면서 실천의 삶을 명령한다. 들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행함을 통해 들음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된다(참고, 6:46-49; 8:21).²¹⁾

율법교사는 예수에게 두 번에 걸쳐 질문하고, 예수는 그에게 두 번에 걸쳐 반문하며 대답하게 한다. 그는 옳게 대답했고, 예수는 그가 대답한 것을 실천에 옮기라고 명령한다. 즉,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앎은 참이 된다.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과 명령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율법의 근본정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점층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율법교사는 율법의 총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다. 그는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었다. 왜냐 하면 두 번째 부분에서 그가 한 질문은 자기중심적 이웃관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과 대조되는 사마리아인의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지를 가르쳐준다. 이는 타인 중심적 이웃관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이웃 사랑이다. 두 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외형적으로 지켰던 율법에 대해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실천적 삶을 통해 율법의 근본정신을 구현해야 함을 점층적으로 보여준다.

21) Green, *The Gospel of Luke*, 426.

3. 다섯 가지 관점과 메시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은 이 비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는 신학적 차원에서 영생의 의미를 알게 한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한 율법교사의 또 다른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한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는 비유로 대답한다. 그리고 비유의 주인공은 예상치도 못한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돕는다. 유대인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을 이웃 사랑의 모범적 인물로 제시한 것은 인종적 차원에서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에 일침을 놓는다. 이 비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훈인 선행은 윤리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누가 특별히 강조하는 구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르쳐준다. 이 비유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각기 다른 교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은 이 비유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공통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이란 주제를 근간으로 다섯 가지 관점을 통해 각각의 교훈을 살펴본다.

3.1 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예수는 그에게서 반문의 형태로 대답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예수가 비유를 말하게 된 계기는 비록 율법교사가 영생

을 얻는 길에 대해 옳게 대답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율법교사는 서기관과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율법에 정통하고 숙련된 자를 가리킨다.²²⁾ 그는 예수를 시험할 의도로 접근하였고 (25절), 이는 다분히 적대적이며 논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²³⁾ 이 이야기의 앞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는 예수의 감사 기도(10:21-24)가 나온다. 누가가가 이 기도 후에 율법교사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지하고 연약해 보이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옳바로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율법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라는 인간의 궁극적 갈망인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 영생은 종말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것’이며,²⁴⁾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소유하게 될 ‘종말의 축복’이다.²⁵⁾ 예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도리어 반문함으로 그의 시험에서 벗어난다. 율법교사는 예수가 율법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며, 옳바로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자 시험하러 왔을 것이다.²⁶⁾ 하지만 예수는 율법을 거부하거나 폐하리

22) 대럴 벅, 『누가복음 2』, 신지철 역, BECN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114.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서기관을 γραμματεὺς(‘그람마투스’)로 표현하는데, 누가는 νομικός(‘노미코스’)를 사용하여 율법의 의미를 강조한다(예. 눅 7:30; 11:45, 46, 52, 14:3; 이곳을 제외하고 νομικός는 오직 마 22:35에만 나온다); R. H. Stein, *Luke*, NAC 24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315.

23) 조셉 A. 피츠마이어, 『누가복음 II』, 우성훈 역, AB 28A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455. ‘시험하다’라는 헬라어 ἐκπειράζω(‘엑페이라조’)는 다분히 적대적 태도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벅, 『누가복음 2』, 114-15. 이와는 다르게 프랜스는 율법교사의 태도가 적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의 대답을 수용하셨다는 데 있다. 프랜스, 『누가복음』, 263.

24) H. K. Luce,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3), 203.

25) 벅, 『누가복음 2』, 115.

26) Green, *The Gospel of Luke*, 427.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며 성취하러 왔다(마 5:17). 예수는 율법에 정통한 그에게 율법에 기록된 것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묻는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라는 질문은 신명기 6:4의 ‘쉐마’(‘들으라’)를 상기시키며 올바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²⁷⁾ 예수는 그가 읽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율법교사는 ‘사랑하다’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명기 6:5와 레위기 19:18을 결합하여 인용하고 대답한다(27절).²⁹⁾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동반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하는데, 이 네 가지는 인격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총합으로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³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한 개인의 총체적인 전인격적 삶의 그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과 노력만큼 타인을 위해서도 헌신과 섬김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 역시 타인을 향한 전인격적인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리킨다.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전인격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벅(Darrell L. Bock)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이다.”³¹⁾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

27) E. Klostermann, *Das Lukasevanglium*, HNT 5 (Tübingen: Mohr, 1929, reprinted 1975), 119; E. E. Ellis, *The Gospel of Luke*, NCB,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74), 160;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Exeter: Paternoster, 1978), 443; W. Grundmann, *Das Evangelium nach Lukas*, THNT 3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3), 222.

28) 데이비드 E. 갈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정옥배 역, 존더반 신약주석 (서울: 디모데, 2018), 487; 존 놀랜드, 『누가복음(중) 9:21-18:34』, 김경진 역, WBC 성경주석 35B (서울: 솔로몬, 2011), 291.

29) 사이먼 J. 키스트메이커, 『예수님의 비유』, 김근수, 최갑중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18.

30) 벅, 『누가복음 2』, 117.

31) 벅, 『누가복음 2』, 118.

예수는 그의 대답을 옳다고 칭찬하시며,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한다(28절). 율법교사가 옳은 대답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율법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온전히 행할 때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행하면 산다는 행위 구원의 조건식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앎은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고 온전한 행위는 참된 앎을 확증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정신은 실천적 행위를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영생은 율법의 근본정신이 삶 속에서 구현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내 이웃이 누구니 이까”(29절)라고 질문한다. 여기서도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29절). 율법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가 내린 명령, 즉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³²⁾ 하지만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한다. 영생에 대한 질문과 이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두 부분은 모두 ‘행하다’(25, 28, 37절)로 마치며, 이 행함은 ‘이웃’(27, 29, 36절)과 관련된다.³³⁾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알려준다.³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확증된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이해가 아닌 타인 중심적인 헌신적 실천을 통해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대답한다. 즉, 영생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입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32) Marshall, *The Gospel of Luke*, 447.

33)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233.

34) 벅, 『누가복음 2』, 112.

3.2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을 확립하게 한다. 필자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관점의 메시지가 도출된다고 본다. 이 비유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웃관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예수가 비유로 말하게 된 이유는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이다. 율법교사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는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해야 하는가이다. 이웃의 범위를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나’라는 자기중심적 이웃관이 자리 잡고 있다. 키스트메이커(S. J. Kistmaker)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일종의 ‘원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자신이 있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에는 가족과 친척이 위치하며, 맨 가장자리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놓여 있다.³⁵⁾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웃관은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서로 간의 형제 됨을 찾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³⁶⁾ 반대로 자신의 이웃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긋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시 로마의 점령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 안에 타민족들과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었다.³⁷⁾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형제, 즉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분해야 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기초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들과 구분하려고 했다(예. 눅 5:30; 7:29). 따라서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인종적, 계층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탈버트(C. H. Talbert)의 말처럼, 그는 “어떻게

35) 키스트메이커, 『예수님의 비유』, 219.

36) B. Gerhardsson, *The Good Samaritan—The Good Shepherd?* (Copenhagen: C.W.K. Gleerup, 1958), 7.

37) 키스트메이커, 『예수님의 비유』, 219.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예수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³⁸⁾ 예수는 율법교사가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웃관을 통해 이웃 범위를 정하고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는 그릇된 자세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이 비유는 내러티브의 형식을 가지며, 단순하지만 잘 짜인 구성을 보인다. 여기에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비유의 주인공은 충격적이게도 유대인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누가는 그가 강도를 만나 비참한 상태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지만,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그를 단순히 “어떤 사람”(30절)으로 서술한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³⁹⁾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과 여러고를 통해 외부로 나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가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로 든 이유는 그들이 자기 동족인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외면한 반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유대인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강도 만난 자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사회적 위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그가 돈을 강탈당하고 벌거 벗겨져 온갖 구타를 맞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래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사람으로 묘사한다.⁴⁰⁾

이제 두 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한다. 한 명은 제사장이고 다른 한 명은 레위인이다(31-32절). 이 둘은 모두 성전과 관련된 제사 의식과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로 철저히 정결 규례를 따라 자신을 부정한 것들과

38) 벅, 『누가복음 2』, 122에서 인용함; Talbert, *Reading Luke*, 122.

39) 김득중, 『누가복음 II』,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50; L. T. Johnson, *The Gospel of Luke*, SP 3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173.

40) Green은 비유 전체에서 강도 만난 자가 익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인간, 즉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Green, *The Gospel of Luke*, 427.

구별하고 분리한다. 누가복음 1:5-23에서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 제단에서 분향하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또한 제단의 직무를 마치고 교대한 후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이다(31절).⁴¹⁾ 누가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고 묘사한다. ‘마침’(κατὰ συνκρίαν, ‘카타 쉰퀴리안’; 우연히)이란 표현은 그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때마침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다.⁴²⁾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도리어 강도 만난 자와 거리를 두며 피하여 지나갔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 벡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다. 둘째, 그가 죄인이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했다. 셋째, 그를 도와주는 사이에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했다.⁴³⁾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제사장이 피했던 이유는 아마도 율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에게 질문한 자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교사이고, 비유에 등장한 인물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되고(민 19:11-19), 특별히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레 21:1-3).⁴⁴⁾ 어쩌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가 도움을 주는 사이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했을 수도 있다.⁴⁵⁾ 그는 강도 만난 자와 반대쪽에 서서 거리를 두며 피하여 갔다. “피하여 지나가고”(31절)로 번역된 헬라이어

41) 갈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491.

42) 벡, 『누가복음 2』, 125.

43) 벡, 『누가복음 2』, 124-25.

44) 갈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492.

45) 갈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492.

ἀντιπαρέρχομαι(‘안티파레르코마이’, 반대편으로 지나가다)는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ἀντί, ‘안티’) 거리를 두며 지나쳐서 피해갔다는 의미를 가진다. 어쩌면 제사장은 자신이 일반 평민도 아닌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이기에 더욱 정결을 지키기 위해 죽었을지도 모를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의 방향을 보면 이 변명은 핑계일 수 있고, 그의 죄는 더욱 부각된다.⁴⁶⁾ 만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제사장 직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갔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이는 그가 제사장 직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생명이 경각에 놓인 자를 외면하고 가는 것은 이웃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⁴⁷⁾

또한 이러한 변명은 예수의 율법 이해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정신은 선행이 외형적 계명의 준수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안식일 논쟁(눅 6:1-11)에서 예수는 자신을 안식일의 해석 주체로—“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6:5)—선언하면서, 안식일의 해석 원리인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규율보다 앞선다고 가르친다(6:9). 또한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고 하면서,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얽매는 율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서 쉽고 회복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율법의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 생명이 경각에 놓인 자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근본정신이며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레위인 또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반대편으로 멀찍이 떨어져 피하여 간다(32절).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지만 제사장 직무는 못하고 대신 성전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봉사한다.⁴⁸⁾ 그는 앞서 제사장이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 그는 제사장처럼 그 길로

46) 블룸버그, 『비유해석학』, 295.

47) 블룸버그, 『비유해석학』, 295.

48) 벅, 『누가복음 2』, 125.

‘왔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았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⁴⁹⁾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자신의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 장소에 있었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지나쳐갔다. 예수는 두 명의 유대 종교지도자가 모두 선행을 배필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유를 통해 말함으로써 의식으로 점철된 유대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을 가한다.⁵⁰⁾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그는 여행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던 동일한 길을 가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이어지는 길을 갔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비유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어느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에 불가능 일도 아니다.⁵¹⁾ 무엇보다도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율법교사에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⁵²⁾ 그는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었고 또한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는 율법교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결코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고통받는 유대인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 고귀하고 정결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동족 유대인을 버리고 지나쳐갔던 반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고통 가운데

49) Green, *The Gospel of Luke*, 430.

50) 에른스트(J. Ernst)는 두 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를 든 이유가 두 중인 모티프를 통해 율법교의 실상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J. Ernst, *Das Evangelium nach Lukas*, RNT 3 (Regensburg: Pustet, 1977), 384; Ellis, *The Gospel of Luke*, 161.

51) 벅, 『누가복음 2』, 127; Marshall, *The Gospel of Luke*, 449.

52) M. Gourgès, “The Priest, the Levite, and the Samaritan Revisited: A Critical Note on Luke 10:31-35,” *JBL* 117 (1998), 709-13.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가 돌보아준다. 여기서 이 비유가 단지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는 선행이라는 교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비유는 분명히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특권 의식, 그리고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만일 단순히 자비를 베푸라는 교훈을 주려 했다면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고 해도 이야기의 구성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의 인물 설정을 달리했다면 율법교사가 듣기에 덜 끌려들었을지도 모른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선한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었다면 아마도 유대인인 율법교사가 듣기에 한결 편했을 수 있다.⁵³⁾ 하지만 예수는 이 비유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율법교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불결하게 여기며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자신들의 동족들도 피하여 버리고 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고결한 유대인이 비천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마리아인이 고결한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극단적으로 인물을 설정한 이유는 이 비유의 초점이 ‘행위’라기보다는 ‘행위자’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⁵⁴⁾ 율법의 최고 준수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동족의 고통을 외면한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저주하고,⁵⁵⁾ 이단으로 취급하는 유대인이 고통당할 때 헌신적으로 돌보아준다. 이 비유는 유대인의 이웃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

53) John Dominic Crossan, *In Parables: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5), 60; 존 도미니크 크로산, 『비유의 위력』,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91-92;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236.

54) Crossan, *In Parables*, 64-65.

55) Walter Wink, “The Parable of the Compassionate Samaritan: A Communal Exegesis Approach,” *RevExp* 76 (1970): 210의 글을 Klyne R.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342에서 인용함.

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도저히 상상하기도,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다. 여기에 이 비유의 충격적이고 도전적이며 변혁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강도를 만나 처참하게 발가벗겨져 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자는 유대인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도움을 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일반 여행객(아마도 상인)인 평범한 사마리아인이다.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은 동일한 혈통인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인으로 경멸받고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비유는 유대인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을 철저히 깨뜨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예수는 비유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반문한다. 흥미롭게도 율법교사와 예수의 질문은 모두 이웃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⁵⁶⁾ 하지만 그들의 질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기중심적 이웃관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반면에 예수의 질문은 타인 중심적 이웃관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라고 물으며 ‘나(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라고 물으며 ‘강도 만난 자(타인)’를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한다.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향해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된다. 맨슨(T. W. Manson)의 말처럼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 낸다.”⁵⁷⁾ 이웃이란 혈연, 지연, 신분 등이 같다고 맺어지거나, 사상, 문화, 생활 양식 등을 함께 공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이란 자신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고통을 알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헌신적

56) Stein, *Luke*, 317.

57) T. W. Manson, *The Saying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Gospels according to St. Matthew and St. Luke Arranged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SCM, 1971), 263.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에 있다.

3.3 인종적 관점

인종적 관점에서 본 비유의 교훈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길은 혈통적 우월감이나 민족적 특권 의식을 철저히 깨뜨리고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만일 예수가 율법교사에게 선행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말했다면, 선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 되고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적절했을 것이다. 우월하고 부유한 유대인이 천대받고 가난한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유는 이러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실천하는 자들로 여겨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린다. 인물에 대한 이러한 파격적인 설정은 예수의 비유의 전복적 성격을 보여주며, 유대인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일침을 가한다.

이 비유는 아마도 율법교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이웃의 범주를 만듬으로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 됄을 정의하려고 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율법교사는 예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가”(29절)로 질문했지만, 도리어 예수는 그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고 반문한다. 율법교사는 예수가 한 물음에 분명한 답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웃관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먼저 그는 이웃을 인종적, 혈통적 차원에서 한정시키려고 했던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다.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외면받는다. 반면에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멸시받는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곤경에 처한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웃은 결코 혈통이나 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고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율법교사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신분을 통해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외식과 특권 의식을 버려야 했다. 예수가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율법교사에게 자신과 비슷한 신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동족 유대인을 버리고 간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릇된 자기중심적 이웃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은 단순히 율법의 외적 준수나 신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한 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한다(마 12:46-50; 막 3:31-35; 눅 8:19-21). 즉,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통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는 이웃의 범위를 이미 누가복음 6:27-36에서 말했는데,⁵⁸⁾ 사실상 이웃의 범위는 제한될 수 없다.⁵⁹⁾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는 이웃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이웃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강도 만난 자, 즉 고통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희생적 포기과 헌신이 요구된다.

예수의 반문에 대해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37절)라고 옳게 대답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자비를

58) 프랜스, 『누가복음』, 264.

59) 벅, 『누가복음 2』, 122.

베룬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면 완전한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율법교사는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인종적 측면에서 비유의 결론은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분명히 민족적 배타주의와 인종적 차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누기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글에서 에피소드와 비유로 네 차례에 걸쳐 기술한다(눅 9:51-56; 10:25-37; 17:11-19; 행 8:4-25).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비극적 역사는 그들이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백 년간 이어온 갈등과 반목, 멸시와 비난, 저주와 폭력은 그들 사이에 연합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예수는 역사가 만들어 낸 이러한 비극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이웃이 되는 길을 가르친다.⁶⁰⁾ 그것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웃이 되게 만든다. 이웃은 인종이나 신분, 더 나아가 종교적 동질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같은 종교 지도자라도, 심지어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자라도 만일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웃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이웃은 오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 사실 예수와 율법교사의 대화는 이미 28절에서 끝났다. 그때도 예수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하시며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하여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다(29절). 율법교사가 옳게 대답한 율법의 기록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27절). 율법은 이웃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시켜서 그들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⁶¹⁾ 그렇다. “사랑은 대상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직 ‘사랑하

60)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Philadelphia: Fortress, 1986), 179.

61) 이웃의 범위와 관련하여 레 19:18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 19:33-34에서는 ‘거류민’ 또한 ‘너희 중에서 낳은 자’, 즉 동족과 같이 여기라고 나온다. 벅, 『누가복음 2』, 122-23. 율법에서 이웃이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⁶²⁾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의 특권 의식과 우월감을 철저히 깨뜨리고, 타인에 대한 배타성과 차별성에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3.4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함을 교훈한다.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선행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다(33-35절). 특별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그는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정결과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아무런 도움 없이 지나쳐버린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상황보다 강도 만난 자의 상황, 즉 그의 고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 공관복음에서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σπλαγχνίζομαι)는 비유를 제외하고 예수의 태도와 행위의 신성과 관련하여 나오는데(마 9:36; 14:14; 15:32; 20:34; 막 1:41; 6:34; 8:2; 9:22; 눅 7:13; 참고 비유에서 사용된 경우는 마 18:27; 눅 10:33; 15:20),⁶³⁾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동정을 느끼는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⁶⁴⁾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눅 7:13).⁶⁵⁾ 사마리아인 또한 강도 만나 고통받는 자를

62)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242.

63) Helmut Köster, “σπλαγχνίζομαι”, *TDNT*, 7:553.

64) *BDAG*, 938.

65) Johnson, *The Gospel of Luke*, 173.

향해 예수께서 가셨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세 명의 인물들 모두 강도 만난 자를 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했고, 사마리아인은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 긍휼의 마음은 타인을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려는 자세에서 나온다.

사마리아인은 단지 불쌍한 마음만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그에게 다가간다. 진정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선행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통받는 타인의 상황에 맞춰서 행해져야 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강도 만난 자가 이미 죽어 있거나 혹은 죽었을 경우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고 성전 직무를 얼마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⁶⁶⁾ 또는 그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자신들을 위협하거나 도와주는 사이에 또 다른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다.⁶⁷⁾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의安危보다 강도 만난 자의 절박한 도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 긍휼의 마음과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다.

레비나스(E. Levinas)는 주체가 타자와 ‘대면’할 때 주체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실체이기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아야 하고, 고통받는 타인과 대면할 때 자신의 자연권마저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의 타자윤리학은 ‘얼굴’이란 심상을 통해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주체가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책임이 있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다는

66) J. T. Carroll, *Luke: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245.

67) Carroll, *Luke*, 245.

것이다.⁶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강도 만나자와 대면했을 때, 그리고 그의 고통받는 얼굴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상황이 아닌 그의 상황을 우선시했고,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준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에게 행했던 현재의 멸시와 과거의 역사적 만행을 생각하지 않았고, 민족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으며, 어쩌면 자신도 당할 수 있는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무조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도와준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적 의무의 본질을 가르친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대면했을 때, 그를 오로지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으로 보았고 공황의 마음을 가진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종적, 사회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면서 고통당하는 한 인간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다. 둘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도와주며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는 사마리아를 떠나 여행 중이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고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의미다.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 그를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돌봐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품으로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 둘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 했다. 이는 그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힘과 물질을 다해 도와주고, 치료를 위해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그가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68) 필자는 김영걸, “레비나스: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대동철학회 90, (2020): 53-78을 참조하여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설명한다. 참고. 에마뉘엘 레비나스, 『타자성과 초월』, 레비나스 선집 (서울: 그린비, 2020);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현대의 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 위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돌봐준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인사불성인 그를 위해 자신이 타야 할 짐승 위에 그를 태워주고 대신 자신은 걸어서 주막까지 가야 했을 것이다.⁶⁹⁾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은 위험의 장소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주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판도케이온’(πανδοχεῖον)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⁷⁰⁾ 사마리아인은 길에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의 장소로 영접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윤리적 차원의 ‘환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를 도울 건지 아닌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 변명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그를 환대했다. 이 환대는 자신의 상황에 앞서 타인의 고통을 우선시하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이다.

3.5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은 누가의 특별한 관심사인 재물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누가의 경제관은 재물의 분배와 구제를 중요하게 다룬다(참고, 눅 4:16-21; 12:13-21; 16:1-13, 19-31; 19:1-10; 행 2:43-47; 4:32-35; 6:1-7 등).⁷¹⁾ 누가는 예수의 공생애를 소위

69) 갈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495.

70) 갈린드,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495.

71) 김득중, 『누가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91), 105-128을 참조하라.

취임 설교(눅 4:16-21)라고 불리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회년을 반영하는 ‘주의 은혜의 해’(4:19) 선포한다.⁷²⁾ 이는 사회경제적 재편성을 의미하며, 현재의 불평등한 상태에서 원래의 평등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해방과 회복을 가리킨다. 특별히 재물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부의 재분배(참고, 눅 19:1-10; 행 2:43-47; 4:32-35)에 초점을 맞추고,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제를 강조한다(참고, 눅 9:19-31; 행 6:1; 9:36; 10:2; 24:7).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에 관해서 마태는 단순히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지만(마 6:20), 누가는 구체적으로 구제를 통해서 재물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눅 12:33).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재물로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재물 사용의 방법, 즉 구제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천으로 싸매면서 치료한다(34절). 이는 그가 여행 중에 자신이 쓸 물건인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치료를 위해 기꺼이 사용했음을 알려준다.⁷³⁾ 기름은 폭행으로 생긴 상처에 고통을 진정시켜주고, 포도주는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⁷⁴⁾ 상세한 치료 묘사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72) 김득중, 『누가복음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61.

73) 벅, 『누가복음 2』, 128.

74) 벅, 『누가복음 2』, 128. 데렛(J. D. M. Derrett)은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를 싸매는 행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과하여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는 행위를 암시하고(사 1:6; 렘 30:17), 성전 예식과 관련된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형식적인 제의와 율법주의에 차우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미 6:6-8). J. D. M. Derrett, *Law in the New Testament*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0), 220-21. 비록 이러한 상징적 해석에 자나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깨끗함을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는 이야기(눅 17:11-19)에서 사마리아인을 참된 예배자로 제시한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공통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눅 17:15-16) 등의 표현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는 다른 유대인 나병환자와 달리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기에 돌아와 예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득중, 『누가의 신학』, 100-101.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환자들은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 떠나갔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는 예수께 다시 돌아와 감사드린다.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얼마나 정성껏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위해 어떤 식으로 아낌없이 사용했는지 가르친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일시적 처방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여행 일정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다음 날까지 돌봐준다 (34-35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적지로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다. 더욱이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준 금액은 두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삤에 해당한다(참고 마 2:20).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주막에서 숙식하며 하루 동안 머물 때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 십이분의 일 데나리온으로, 두 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자가 24일, 즉 3주 이상은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금액이다.⁷⁵⁾ 또한 추가되는 비용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되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재물을 타인을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재물 사용에 대한 누가의 신학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재물은 곤경에 처한 자를 돕고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책임감을 나타낸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 만난 자의 건강 상태와 회복을 걱정하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진정한 선행의 자세를 보여준다.

데, 사마리아인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기름과 포도주를 고통받는 자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런 행위 없이 지나가 버린다. 사마리아인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 외식과는 달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인다.

- 75) J. Jeremias,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An Investigation in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during the New Testament Period*, trans. F. H. Cave and C. H. Cave (London: SCM, 1969), 122-23;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trans. I. McCluskey, F. McCluskey, and M. Ron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0), 110.

3. 결론

복음서의 비유 중에서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도출해 내는 비유도 없을 것이다. 예수는 오직 하나의 교훈만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비유가 포함된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참된 이웃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과 다채로운 이야기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유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관점을 통해 해석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신학적 관점은 영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영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특별히 비유는 이웃 사랑의 의미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훈한다.

둘째, 사회적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의 의미를 정립하게 한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29절)로 질문하면서 자기중심적 이웃관을 가진 반면, 예수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로 반문하면서 타인 중심적 이웃관을 제시한다.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신분, 지위, 혈연, 지역 등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형성되지 않고, 타인을 중심으로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도와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이웃관은 고통받는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인종적 관점을 통한 이해는 유대인의 편협한 민족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을 깨트리고, 이웃이 됨을 통해 인종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비유의 가장 파격적인 점은 인물 설정에 있다. 비유는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모범적인 이웃의 상을 제시하고, 그와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람직하지 못한 이웃 상을 보여준다. 유대인 내에서 종교적이고 신분적인 면에서 가장 정결하고 존경받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을 외면한 채 지나쳐버리지만,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해 유대인인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 이는 예수의 비유가 가진 전복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의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대인이 가진 민족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웃 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인종적 장벽을 허물어 이웃으로서의 하나가 되게 한다.

넷째, 윤리적 관점에서 본 비유의 교훈은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무조건적인 선행이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자와 마주했을 때 외면하고 회피할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를 강도의 위험과 제의적 정결의 훼손을 염려해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비유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를 보았을 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자인지 상관하지 않고 단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는 자신의 여행 일정을 모두 제쳐놓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상관없이 그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할 때 참된 이웃이 된다.

다섯째, 경제적 관점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가르친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경제관의 핵심은 구제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러 헌신적으로

도와준다. 자신의 여행길에 사용할 물질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시간상으로 여정이 지체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막까지 데려가 돌봐주며,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신이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갚겠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제는 단회적인 도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책임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만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요구된다. 특별히 뿌리 깊은 역사의 반목과 민족(인종)적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적대적 폭력과 분쟁의 상황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탄식 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해서 맴돌며 울려 퍼진다. 인간의 최악이 만들어 낸 비극의 참상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비록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과 개처럼 취급당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고통받는 유대인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이웃이 된다. 이웃이 되는 것은 대상을 문제 삼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때 이루어진다. 폭력과 분쟁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평화와 화합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 이웃 됨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길은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주제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 신학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인종적 관점, 윤리적 관점, 경제적 관점

<Keywords>

Christian view of neighborhood, theological perspective, social perspective, racial perspective, ethical perspective, economic perspective

참고문헌

- 갈런드, 데이비드 E.,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 정옥배 역, 존더반 신약주석, 서울: 디모데, 2018.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현대의 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김득중, 『누가복음 I』, 『누가복음 II』,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누가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_____,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98.
- 김영걸, “레비나스: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대동철학회 90 (2020), 53-78.
- 김춘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0-35)에 나타난 예수의 해학,” 신학과 목회 37 (2012), 151-182.
- 놀랜드, 존, 『누가복음(중) 9:21-18:34』, 김경진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2011.
- 레비나스, 에마뉘엘, 『타자성과 초월』, 레비나스 선집, 서울: 그린비, 2020.
- 벽, 대럴, 『누가복음 2』, 신지철 역,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브루스, F. F. 외, 『새성경 사전』,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블롬버그, 크래그, 『비유 해석학』,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 스캇, 버나드 브랜드,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 스타인, 로버트 H,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방법과 메시지』, 김도일, 최홍진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윌리엄스, 데렉 편집, 『IVP 성경사전』, 이정석 외 역, 서울: IVP, 1992.
- 크로산, 존 도미니, 『비유의 위력』,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2012.
- 키스트메이커, 사이먼 J, 『예수님의 비유』, 김근수, 최갑종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프랜스, R. T., 『누가복음』, 이옥용 역, Teaching the Text Commentary Series,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피츠마이어, 조셉 A., 『누가복음 II』, 우성훈 역, Anchor Bibl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Bauer, W., F. W.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BDAG)
- Beasley-Murray, George R.,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36, Dallas: Word, 2002.
- Bornkamm, Günter, *Jesus of Nazareth*, Translated by I. McCluskey, F. McCluskey, and M. Ron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0.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nchor Bible 2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Carroll, John T., *Luke: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Crossan, John Dominic, *In Parables: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5.
- _____, "The Parables of Jesus," *Interpretation* 56 (2002), 247-259.
- _____,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New York; HarperCollins, 2013.
- Derrett, J. D. M., *Law in the New Testament*,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0.
- Ellis, E. E., *The Gospel of Luke*, 2nd ed., New Century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74.
- Ernst, J., *Das Evangelium nach Lukas*, Regensburger Neues Testament 3, Regensburg: Pustet, 1977.
- Ferguson, Everett,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 Gerhardsson, Binger, *The Good Samaritan—The Good Shepherd?* Copenhagen: C.W.K. Gleerup, 1958.

- Gourges, Michel, "The Priest, the Levite, and the Samaritan Revisited: A Critical Note on Luke 10:31-35,"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 (1998), 709-713.
- Green, Joel B.,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Grundmann, W., *Das Evangelium nach Lukas*,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3,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3.
- Hultgren, Aland J.,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Eerdmans: Grand Rapids, 2000.
- Hunter, A. M., *Interpreting the Parables*, London: S.C.M Press, 1972.
- Jeremias, Joachim,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An Investigation in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during the New Testament Period*, Translated by F. H. Cave and C. H. Cave, London: SCM, 1969.
- Johnson, Luke Timothy,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3,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 Jones, Geraint V., *The Arts and Truth of the Parables*, London: S.P.C.K., 1964.
- Jullicher, Adolf, *Die Gleichnisreden Jesu*, Vol. 1, Freiburg: J. B. C. Mohr, 1888.
- Kittel, Gerhard, Geoffrey W. Bromiley, and Gerhard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4-1976. (TDNT)
- Klostermann, E., *Das Lukasevangelium*, Handbuck zum Neuen Testament 5, Tübingen: Mohr, 1929, reprinted 1975.
- Luce, H. K.,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3.
- Manson, T. W., *The Saying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Gospels according to St. Matthew and St. Luke Arranged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SCM, 1971.

- Marshall, I. Howard,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Exeter: Paternoster, 1978.
- Perrin, Norman, *Jesus and the Language of the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1980.
- Snodgrass, Klyne R.,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Stein, Robert H., *Luk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4,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 Talbert, Charles H., *Reading Luke: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Third Gospel*, New York: Crossroad, 1982.
- Tannehill, Robert C.,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Philadelphia: Fortress, 1986.
- Via, Dan Otto, Jr., *The Parables: Their Literac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1967.
- Wink, Walter, "The Parable of the Compassionate Samaritan: A Communal Exegesis Approach," *Review & Expositor* 76 (1970), 199-217.
- Young, Bread H., *The Parables: Jewish Tradition and Christian*, Peabody: Hendrickson, 1998.

<초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의 다차원적 이해

—신학적, 사회적, 인종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선옥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본 논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다섯 가지 관점을 통해 이해하고 메시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비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왔다. 알레고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역사비평적 해석, 실존주의적 해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여 비유의 메시지를 찾고자 했다. 비유 해석사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 율리허(A. Jülicher)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마침표를 찍고, 비유에는 오직 하나의 교훈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예수가 비유로 가르칠 때 단지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전하고자 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비유로서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다양한 교훈을 가르친다.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이웃관’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이 비유의 메시지들을 찾고자 한다. 영생과 관련된 신학적 관점, 이웃의 의미와 관련된 사회적 관점, 우월감과 편협한 민족주의와 관련된 인종적 관점, 선행과 관련된 윤리적 관점, 소유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관점을 통해 비유가 제시하는 각각의 교훈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모두 참된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결된다. 이 논문은 다섯 가지 관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웃관과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행해야 할 실천적 삶이 무엇인지

를 논한다. 현시대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때 화합과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지침이 될 것이다.

<Abstract>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25-37):

**Focusing on Theological, Social, Racial, Eth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Asst. Prof. Sun Wook Kim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New Testament)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25-37) and to explore its messages from five distinctive perspectives. Until now, Jesus's parables have been interpreted in various ways. We attempted to uncover the messages of the parables by interpreting them through diverse lenses, including allegorical, Christocentric, historical-critical, existentialist interpretation, and so on. Adolf Jülicher, who brought about an epoch-making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parable interpretation, puts an end to allegorical interpretation and argues for only one lesson in a parable. However, did Jesus truly intend to convey just a single message when teaching a parable?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 representative example, refutes this claim, as Jesus imparts multiple lessons through it.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se lessons from five perspectives, with the central theme of the 'Christian view of neighborhood': a theological perspective related to eternal life, a soci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meaning of neighbors, a racial perspective addressing superiority and prejudiced nationalism, an ethical perspective focusing on good deeds, and an economic perspective considering the use of possessions. These lessons are all connected to what it means to be a true neighbor. Through

these five perspectiv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Christian's understanding of the neighborhood and the practical life that he or she should lead to become a true neighbor. In the midst of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we are experiencing in the present era,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serves as a guide toward harmony and peace. By embodying the qualities of a true neighbor, individuals should contribute to this path by participating in the suffering of others and providing necessary assistance.

